

Jean-Marc Pottiez

1936년 출생, 파리대학 문학부, 정치학 대학원 준비과정 수료, 일본주재 프랑스 대사관 주재원, 육, 해공군 무관보, 도쿄주재 라디오 프랑스 특파원, France Culture, France Inter 편집자, 동경주재 프랑스 방송사 연합회 대표, The Japan Times 논설위원, 비평가, 자유기고가. 저서로는 *Hannichi-no-Kanjo, Distance Education in the World, Shaloma* 등이 있음.

프랑스와 유럽, 그리고 마스트리히트 조약

장-마르크 포티에즈

우선 제 연설의 한계를 명시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학이나 경제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 관점은 철저히 개인적이며, 순전히 저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 관점은 아시아에 와본 경험이 있는데 다 자기 나라와 유럽의 변모를 오랫동안 열정을 가지고 가까이에서 또는 멀리에서 관찰해 온 신문기자의 관점인 것입니다. 더불어 제 신조를 아주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껏 줄곧 두말할 나위없는 유럽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저는 아프리카인 혹은 아시아인, 다시 말해서 “세계의 시민” - 새로운 세계의 시민이 되기를 열렬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위기에 처한 우리의 세계에는 물리적, 혹은 정신적인 국경을 뛰어넘는 정신과 문화, 정서의 공동체가 점차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우방과 상대국들, 특히 우리처럼 고통 속에서 탄생하여 (언젠가는) 그들의 과거와 분단상황을 그들 자신과 그들의 인접국가들과 함께 종식시키려는 북한과 남한에게 유럽의 역사와 유럽건설의 역사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스트리히트 이전과 이후

마스트리히트 이후(以後)가 있는 것처럼 이전(以前)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저는 그 점을 간략하게 상기시키는

정도에 그치고자 합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서구유럽에는 이른바 <유럽열병 europhorie>이라는 것이 번졌습니다. 1991년 11월, 12개국의 지도자들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서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유럽열병 europhorie>의 분위기 속에서였고, 동구와 세계의 다른 지역의 무질서에 직면하여 유럽을 더욱 결속시킴으로써 유럽공동체의 건설을 더한층 가속화시킬 필요성에 떠밀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앞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낙관주의 때문에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여론은 큰 열의도 없는, 별로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였거나,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비준은 열기를 일으켜 놓았을 뿐 아니라, 전체 유럽 내에서 (그리고 아마도 유럽 바깥에서도) 우리가 함께 일하고, 여러 가지를 꿈꾸려고 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숙고하도록 했습니다.

덴마크와 프랑스, 아일랜드, 이 세 나라는 이미 국민투표를 통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관여했었습니다. 1992년 6월 2일에 덴마크인들은 아주 근소한 차(50.7%)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1992년 9월 20일 프랑스에서는 아주 떠들썩한 국민투표 캠페인 끝에 <예>라고 하는 지지자들이 근소한 차(51.05%)로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은 시원스럽게 <예>라고 말하지 않은 셈입니다. 그건 "예, 하지만..."인거지요. 아일랜드인들은 더 분명하게 <예>라고 했습니다.

이 국민투표가 끝난 뒤에, 우리는 (특권을 지니고 있으며, 부유하고 역동적인) "프랑스 상층"과 (국가와 유럽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고서 웅크리고 있는) "프랑스 하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럽에 대해 점점 공포심을 갖게 되는 프랑스인들의 수가 왜 점점 많아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생활 수준과 여가, 환경, 안전이 침해당하기 때문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이 마스트리히트에서 구상된 유럽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나 논거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에 표를 던진 사람들 중에는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 농민,

지식인, 술한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일차 세계대전을 체험하고, 보다 긴밀한 상호관계와 평화와 화해를 지지하는 (생존에 따르는 물질적인 문제를 너무 많이 겪지 않은) 청년퇴임자들이 있습니다. <아니오>라는 답변의 지지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다양한 직업을 가진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가정살림에 어려운 많은 주부들이 <아니오>에 표를 던졌다는 것을 말이 나온 김에 해둡시다.

어째서 유럽공동체 전체에서는 물론 프랑스에서도 <아니오>, 또는 <네, 하지만>이라는 답변이 늘어가는 것일까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국가, 마을과 씨족, 가족에게로 옹크러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유럽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거부와 찬성이라는 미온적인 반응은 그들로 하여금 참고 기다리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의회의 비준을 통해서 이 조약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경우 국민투표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게 되는데 그런 만큼 메이저 Major 총리의 걱정은 크고, <유럽공동체 비판자 Euro-critique>들은 영국에서는 점점 비중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속도로 변모하는 유럽

그러면, 이제 겨우 덴마크인들이 두번째로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벌써 시효를 다한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망설임과 주저, 불신과 거부를 불러 일으킨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이 점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석탄과 철강에 관한 유럽공동체 조약(CECA, 1951년 4월 18일 파리에서 조인)과 특히, 유럽공동체의 경제교역을 국제화하고자 1957년에 조인된 로마 조약의 연장선 상에 있는 만큼 더더욱 그렇다 하겠습니까. 아

물론 회원국들이 1958년 1월 1일에 발효된 협정의 내용을 마침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985년 룩셈부르크에서 맺은 <단일시장 Acte Unique> 조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2개국의 지도자들이 로마조약을 수정한 것인 셈입니다. 그들은 경제분야 (특히 단일 시장과 단일화폐의 창출과 관련해서)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안과 결의를 함으로써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의회와 시민권의 측면에서 정치적 지평을 넓힘으로써 (지정학적, 전략적 조건이 유럽과 전세계에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더더욱 필요한) 공동방위의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급기야는 민족주의 지지자들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유럽관료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자끄 들로르 Jacques Delors는 <보정 subsidiarité>의 원칙을 승인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회원국들이 자신에게 부과된 사안들을 유럽 전체의 요구에 따르기 보다는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원칙입니다. 가령 최근에 브뤼셀의 위원회가 보건성 장관들의 권고와는 반대로 각 회원국들에게 유아용 우유제품에 대한 규준을 그 회원국들의 관습과 문화에 따라 정하도록 결정했을 때, 벌어졌던 일이 그것입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은 분명합니다. 물론 협상자들을 갈라 놓았던 것은 경제적 문제들과 사회적 연대성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독일인들과 특히 콜 Kohl 수상이 1997년과 1999년 사이에 단일한 중앙은행을 창설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위협을 감수하면서 한걸음 양보하기로 했던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 여러 회원국들의 경제, 화폐정책을 하나로 수렴시키려면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몇몇 나라들은 만성적인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럽통화제도(SME)와 정통적 경제운영의 규약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세계에서 어떤 것이 정통적일 수 있으며, 또는 어떤 것이 정통성을 견지할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는 그래도 가장 나은 처지이지만, 영국은 최근에 독일이 어떻게 해서든 통화안정을 유지하려고 상호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유럽통화제도(SME)를 탈퇴해

야만 했습니다.

단일은행 창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우선 화폐의 이동이 통치권을 이동시키게 하여, 그 결과 이 은행은 실제적으로는 “독립적”(“자율적”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할텐데)이지 않을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이 창설될 경우에 독일의 파트너 국가들의 한결같은 목표는 <프랑크푸르트 화폐발행기구>에 맞서서, 통화안정에 대한 신조를 단념하지 않는 독일인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 1월 1일 이후로 자본의 이동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러한 첫 단계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첫 단계 동안에 회원국들은 각국의 경제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렴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1994년 1월 1일에 단일은행, 즉 유럽 통화기구IME의 모체가 설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렴의 노력이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큰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성장은 더욱 둔화될 것이며, 임금과 구매력도 더욱 감소될 것이고, 실업은 증대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사회적 갈등이 다시 생겨나고 필연적으로 대내외적인 정치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들어서 우리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협상과 관련해서 그 점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인들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촉발시킴으로서 도움을 주었던 독일인들에게 압력을 넣어, 농업부문 사업과 관련해서 프랑스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 간의 연대는 모진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공동체에 속한 유럽인들을 분열시켰던 (그리고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있는) 또다른 문제는 안보와 방위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들어 방위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측은 서유럽연합(l'Union de l'Europe Occidentale)과 나토(l'OTAN)입니다. 하지만 이미 공동중재 부대를 구성한 프랑스와 독일은 워싱턴의 후견에서 벗어나서 - 드골이 이미 취한 바 있으며, 전세계에 퍼진 태도이지만 - 이를테면 유럽 스스로의 통합방위를 밀고 나가고 싶어합니다. 물론 미국인들은 그런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트 협상에서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

이 안보와 지역 전략적 측면에 있어서 서로간의 불편한 분위기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지만, 아무도, 특히 가장 힘이 있는 자와 어느 정도 힘을 가졌거나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 변화를 달가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의 분야에서도 일종의 “제각기 변모하는 유럽”, “다양한 속도로 발전하는 하나의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남반구 국가들의 빈곤의 심화, 그리고 독립국가연합(Communauté d'Etats Indépendants)와 동유럽의 몰락에 의해서, 또한 만성적 적자와 그 자신의 통화문제를 관리하지 못하는 미국의 무능력, 세계적 차원의 위기에 의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아담 스미스 연구소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의 기업 중에서 40%에서 80%가 파산상태에 있습니다. - 그렇다고 이 점이 이 나라들에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를 막지는 못합니다. 러시아의 인플레이 비율은 공식적으로 1주일에 5%이며, 따라서 1년에 1300%입니다.

민주주의의 손상(déficit démocratique)과 엄청난 공포

경제와 통화의 영역에 있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 외에도, <아니오>라는 답변을 지지한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부재와 결핍을 점잖게 숨기고 있는 유행어인 <민주주의의 손상>을 비판합니다. 조약의 책임자들이 여론을 잘 해석하지 못했고 또한 여론을 잘 설득시키지도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 국민의 이름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아니면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의 의견을 묻거나 국민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지 않고서도 쉽사리 그들이 조약을 받아들이게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민주주의의 손상”이 낳은 결과는 바로 다른 어느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공동체의 주민들이 그들 국가의 책임자들이나 브뤼셀의 기술관료와 행정관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완전히 믿거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해 <아니오>나 <예, 하지만>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들 국가의 지도자들과 브뤼셀의 지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모든 유럽인들은 유럽을 신뢰하고 있지만, 그것이 똑같은 유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스트리히트의 책임자들은 유럽의 현재의 모습과 그들이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을 여론에다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경고를 고려할까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론과 투표자들의 신뢰와 지지가 없이는 그들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와 마찬가지로 브뤼셀에서도 사람들은 보다 적은 수의, 그러나 훨씬 좋은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간섭주의와 관료주의가 약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지시사항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정치책임자들은 현재의 공포와 불안을 염두에 두어야 마땅합니다. 유럽의 주민들은 경제위기와 성장과 소비의 둔화, 증권거래와 투자의 저조, 실업, 구매력과 생활수준의 하락, 자연과 사회환경의 파괴, 핵 공포, 폭력과 불안과 같은 억제할 수 없는 도시화현상, 이민문제의 압박, 동유럽에 존재하는 무정부상태, 종교적 근본주의의 부상, 온갖 종류의 분쟁들, 빈민들의 빈곤심화, 민주주의의 재검토, 정치가들과 관료제에 대한 불신, 권력과 돈 사이의 불건전한 관계와 국가기관들과 법, 시민정신, 윤리의 퇴행(우리는 유혈사태에서 그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협력발전기구(OECD)는 공업국들에 있어서 1993년에는 2.1%의 실업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나라들에는 3천만의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빈곤이 모든 나라와 제일 부유한 나라에까지도 뿌리를 내리고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4천 8백만의 빈민이 살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공동체(CEE) 전체에는 빈민이 4천만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빈곤에 정신적 빈곤과 미래에 대한 공포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빈곤과 절망의 늪에서 이 세계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수단 만은 아닙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과 같이 유럽에서도 최소한의 연대성과 상호부조가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램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작은 것이 - 그리고 중간이 - 아름답다

가트(GATT)에서 현재 진행되는 협상이나 유럽통화제도(SME)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것들은 대개 유럽의 무역과 국제무역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주의와 정치, 금융, 통화 상의 단기간의 계산이 계속해서 다른 것보다 우위를 점합니다. 미국은 언제나 적자를 막고 집안 단속을 하기 위한 뼈아픈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인들은 그들의 동맹국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손쉬운 해결책의 채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농업 부문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워싱턴(적어도 부시 외 무정책진의 결정으로는)은 유럽농산물 수입에 도합 3억 달러의 세금을 붙이려고 합니다. 만일 유럽인들이 미국의 요구사항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유럽공동체 토지 중에서 21%가 동결되고, 1500만 마리의 프랑스산 송아지가 버려지고, (또 다시!) 팔리지 않은 곡물의 재고를 쌓아놓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첨언하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재고라니 얼마나 빈축을 사겠습니까!) 이런 조처는 농촌의 황폐화와 도시로의 이주, 광범위한 불만과 위기감을 조장할 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과 세계의 안정을 깨뜨리는 것이 미국인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기업과 경쟁을 권장하는 미국인들이 (유럽인처럼,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인들과는 달리) 그들의 농업에 보조금을 열성으로 지급하는 선두주자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밀 가격의 세계적 추이는 늘 시카고에서 결정되며, 미국적 유형인 집약적 유형의 농업과 경쟁에 입각한 수출은 자연환경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동시에 합리적으로 잘 조절된 성장에 대해서도 모두 이

상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경제와 공업지구에서는 소규모 혹은 중간크기의 구조와 경작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위기상황의 경제와 궁핍과 기근에 처한 경제, 즉 일반적인 생존에 적합한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작은 것이 - 그리고 중간이 - 아름답다.” 결국에는 이 원리가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 차원에 적용될 것입니다. 유럽과 같은 그런 국가들과 그룹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우리는 개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지역과 공동체에 주도권들을 넘겨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인 프랑스를 두고 보자면, 조정의 여지는 매우 적습니다. 현정부는 새로운 공동농업정책(PAC)을 내놓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정부로서는 농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다른 정책을 제시하기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어쨌거나 93년 3월에 있을 국회의원선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인들은 프랑스를 굴복시킬 목적으로 독일과 영국에 압력을 가하는데 그것을 이용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언론은 거의 한결같이 프랑스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세계에 대항하는 프랑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한 사설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판결문 같이 꽤 간략한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세계교역의 증대만이 성장에 새로운 활기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국을 필두로 해서 국내적인 노력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로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들 각각의 차원에서 난관과 문제들의 근원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고, 싸우느라,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느라 여러 세기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개혁과 구조, 체계, 일정표나 속도를 강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시간과 숨씨, 기민함, 노력의 배분, 상대방에 대한 존중 - 짐작컨대, 한국의 통일의 경우처럼 - 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럽의 건설은 미국에서의 미연방의 건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구조와 구성면에서 뛰어난 문명과 문화로 이루어진 아주 오래된 모자이크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에는 단일 언어가 없고, 60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있으며, 그중에 유럽경제공동체(CEE)에 속한 20개의 언어와 다른 총 9개의 언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사회주의에서 군주제를 거쳐 자유주의에 이르는 갖가지 색채를 지닌 나라들도 모여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과 같은 두 인접 국가는 기질과 정신 면에서 아주 판이합니다. 스페인 민족은 여러 민족들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바스크와 카탈로니아 민족을 통치하고 있으며,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1789년의 공화국 혁명에서 탄생한 전형적인 민족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두 나라를 묶는 것은 유럽, 즉 특정한 문화적 공간이자 삶의 양식이며, 살고 호흡하는 일정한 방식인 셈입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개혁의 일정은 확실히 수정될 것입니다. 조약은 93년 가을, 아니면 94년까지는 보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인과 독일인이 그것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더 두고봐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유럽통합은 진전되어 갈 것입니다. 단일한 대시장이 설립되는 것은 1993년 1월 1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고, 유럽공동체의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같은 후보국들의 가입과 관련된 결정들이 기대됩니다. 이는 유럽공동체를 12개국에서 16개국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인과 스위스인들은, 그들 지도자들이 낙관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뒤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헝가

리, 터키, 키프로스, 몰타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통합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는 새로운 유럽의 회원국의 수를 22개국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화와 점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차원을 지니고 다양한 속도로 변모하는, 말하자면, 하나의 유럽, 지형이 변하는 유럽, 일종의 임의의 유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것이 어렵고 복잡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때 보다는 인내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 점을 유의한다고 해도, 사실 모든 새로운 결합은 규방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암투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으로 귀착될 수 있으며, 공동시장은 난장판과 약육강식의 장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유럽, 그 정체성의 청사진

내일의 유럽이 갖게 될 정체성의 청사진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예시하고 있듯이) 단일국-유럽, 또는 유럽연방, 아니면 합중국 유럽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유럽의 일을 보다 잘 관리하고 조정하려면 강력한 정치력과 정치적인 조정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유럽을 건립한 선구자들은 권력의 분리에, 즉 위원회와 장관회의, 유럽의회를 분리시키는데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성장문제와 경제위기 때문에 유럽은 경제와 정치를,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길보기에 그것은 델레마인데, 그것은 모든 나라의 지도자와 책임자들의 의견을 대립을 야기하는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의 통합과 효율성은 정치적 뒷받침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정치도 단일화제와 일사분란한 경제적 조치 없이는 작용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 제 생각으로는 - 바로 여기에 거짓 문제와 거짓 델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에서 정치를 분리시킬 수 없다면, 또는 반대의

경우라도, 그것은 우리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과학이나 기술과 마찬가지로) 정치와 경제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인간에 봉사해야 하고> 개인의 책임과 참여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조정과 융합과 통합은 우리의 정신과 행동의 면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관자 측에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꼭 개정되고 유럽이 확대와 다양화를 향해서 변모해간다고 해서 <단일현장 Acte unique>이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기될 정도로까지 되겠느냐고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또한 국가의 의지가 또다시 유럽동맹국의 정치적, 경제적 결정에 주된 동기와 주된 동력이 되겠는지에 대해 회의를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투쟁해온 것, 즉 국가주의의 재발을 보게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 제가 보기에는 - <예>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고이즘에 함몰된다면, <예>가 될 겁니다. 화폐와 경제위가 심화된다면, <예>가 될 겁니다. 미국인들이 유럽인과의 무역전쟁에서 도가 지나치면, <예>가 될 겁니다. 국가의 정치인들과 유럽공동체의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보다 많이, 정보를 보다 많이, 협조를 보다 많이, 법과 규제의 면에서 배려와 인간애를 보다 많이 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그리고 테크노크라트와 관료가 보다 적어지길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면, <예>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지도자들이 스페인의 바스크족과 카탈로니아족, 코르시카족, 오크족, 프랑스의 브르타뉴족, 북아일랜드족, 골족, 대영제국의 스코틀랜드족 등의 소수민족들에게서의 민족주의와 자치주의의 비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능수능란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예>가 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일의 유럽이 은행가들과 정치인들, 테크노크라트, 관료들이 꿈꾸는 유럽과는 아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근본적이면서 동시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깊은 요구에 떠밀

려 위기에 처한 유럽의 한 가운데에서 유럽인들은 (피테의 멋진 표현대로) “선택적 친화력”에 따라 재편성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 나는 단일시장과 화폐 보다는 “켈트정신”과 “카탈로니아 민족주의”, “바스크 민족주의”쪽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결손”과 관련하여, 또한 특히 그들 국가가 유럽공동체처럼 점점 커가는, 또한 일종의 잡동사니 창고 같은 곳에서 융합되어 갈 때에 개인들이 갖게 되는 정체성 상실과 홀대의 느낌과 관련하여, 저는 마스트리히트 이전에 나온 논의들과 동시에 마스트리히트에 반대하는 논의들에 실망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 이러한 논의들은 분석에 있어 전혀 완전치 못하며, 제안내용도 별로 선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 논의들은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그 논의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시대와 갈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일의 세계

머리 셋과 심장 셋이 달린 아기들

2차 세계대전의 대학살 이후로 유럽인들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이며 문화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개혁운동을 벌여야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유럽이 유럽이 일으킨 이 전쟁의 가장 피비린내나는 싸움터였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 때문에 유럽인들은 - 한국인들처럼 - 과오와 편협성, 인종주의와 분열의 고통과 댓가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은 세계에 유례없는 문화의 요충지로, 이로 인해서 유럽은 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 다수의 국가를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유럽통합의 지지자들이 강력한 통합 유럽이야말로 미국인이나 일본에 맞서서 더욱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아주 당혹스러웠다는 점을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농산물 조약과 관련해서 프랑스에 맞서서 독일인이나, 영국인, 오스트리인이나 일본인을 규합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장차, 중국인과 한국인, 일본인들이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서양의 야만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유럽의 지도자들은 무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서로 배타적으로 차별하지 않으면서, 상호의존과 연대라는 카드를 돌리며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미 대륙을 다같이 이루어야만 합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민족주의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펴면서, 프랑스가 오직 혼자 힘으로 프랑스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조절하고 프랑스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기 보다는 몹시 위험합니다. 유럽식 교육을 받았고, 중심부에 느긋하게 안주하기 보다는 주변부에 위치한 것들에 매우 관심이 있는, 또한 아시아에 대한 애착이 강한, 아프리카인으로서의 저의 소견으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 - 위기에 처해 있으며 크게 변화하고 있는 이 세계는 이론과는 다르게, 또한 국경과 이전부터 내려오는 관례적인 구획들을 초월하여, 또한 기존의 물질적이며 정신적인 틀을 뛰어넘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기들은 저마다 적어도 머리 셋, 언어 셋, 심장 셋을 달고 태어날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한국인이면서, 아시아인이며, 또한 세계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아기들도 프랑스인이면서, 유럽인이며, 동시에 세계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세계가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간추려보면, 집단적인 생존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차원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복잡한 국면을 다스리고, 그것에서 풍요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남고 발전해 갈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인류(또한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의 영원성을 보장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진정한 문명과 진정한 문화 - 다시 말해, 세계적이며 우주적인

질서를 지닌 문명과 문화를 건설할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데 저마다의 답변을 내리는 것은 개인과 가족, 공동체와 국가 각각의 몫입니다. 그 답변이 독창적이고 서로 상이하든 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보다 살찌우고, 생존의 가능성을 보다 늘려줄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또한 프랑스인들이 그들의 1789년 혁명으로, 히틀러가 나찌즘으로, 스탈린이 공산주의로써 행한 바 있지만) 인간과 여성, 세계인으로서의 유아의 모델을 고안해서 제시하고, 더불어 그들 자신의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간을 실험재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온갖 형태의 유럽으로 넘쳐나며, 다양한 정체성과 잠재력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이라는 모자이크를 만들고, 확대시키고, 윤색하기 위해서는 유럽인들을 오로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지만은 않은 계획에 끌어들여 규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간의 술한 실패와 고통에 책임이 있는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고와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복잡한 국면의 관리가 뜻하는 바입니다. 우리들 간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서로서로 풍요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차별성에 대한 권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상호 간의 소통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의사소통의 권리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근본적인 권리일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권리는 쉽사리 논쟁거리가 되며, 실제 혹은 가상의 국경을 지날 때마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상호소통망과 함께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정보관리를 쇄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백을 하고 있거나, 끝없는 갈등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갖 폭력이 활개치게 됨으로써 석기시대로 다시 후퇴하고, 또한 온갖 종류의 전체주의가 판을 치는 것을 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조짐들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나라가 - 그리고 특히 일정한 형태의 문화와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요람인 유럽이 - 제가 방금 열거한 근본적인 권리들 모

두를 존중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권리를 지키는다면, 그때에는 모두 희망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유럽이 강력한 존재로서 복지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느냐는 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력에 대해 유효하며 필수불가결하기까지 한 대극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인들이 유럽 민족주의의 사이렌 요정에게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통합유럽 건설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 유럽인들은 - 비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그들의 모자이크를 조화롭게 만드는 이 거대하고 험기증나는 작업이 단지 정치나 경제, 사회, 또는 이데올로기와 수완과 흥정, 완력과 같은 속임수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납득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을 건설하는 것은 세계를 건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무엇보다도 화학이 아니라 연금술에 속하는 일입니다. 머리를 쓰는 것보다 가슴을 덥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시금 개인으로 집중되어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 개인을 보다 책임감있고, 세계에서 돌아가는 일에 보다 관심을 가지며, 참여와 행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참여와 책임분담이 없다면 모든 예측은 헛된 것이며, 가장 훌륭한 계획이나 가장 성공적인 조약도 모두 종이카드로 지은 성처럼 무너지거나, 아니면 -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폭넓게 입증하고 있듯이 - 적어도 심각한 난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사례

따라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재건설과 통합과 발전에는 우리의 최대한의 역량이 요구됩니다. 한국인들, 그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처럼 한국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분단문제가 그들 최대한의 역량, 다시말해 용서와

화해, 그리고 분리가 아닌 상호접근, 맹목이 아닌 현명함의 고취에 힘입어 어떻게 해결되어 나갈 것인가를 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례가 한국에도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면, 남한은 물론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의 사례 역시 유럽에도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적어도 그것은 제가 품고 있는 기대이자 저에게 힘을 주는 확신입니다.

<안현주 역>